

넋겨니와 엇지은인을 그긋치 더우홀슈가잇느냐 오날브터는 네가니야오가
되여라

은네가 잠씩놀나며

아씨계셔는 천만부당홀 분부를하나다 소비가 용덜호은탓으로 아씨계셔
이처럼고성호신것도 하등의 황송무디함입거던 더구나 은인이라노 분부를
함입시고 또호아오가된다호신이 소비가바로 이즈리에서 죽을지언정 외람
히그분부는 봉형치못호겟는이다

박씨가다시 은네의손목을잡으며

이이 그러치안이호다 너는엇지호야 나의호인이되얏고 나는엇지호야 너의
상면이되얏던지 그는다 일시지년일이라 다시키론할바 안인즉 지금와셔는
너와나사이에 정의로만 말할것이오 또호가지 그러치안이호겟는이잇스나
를죽을싸에서 구제호시던 차두형씨는 곳나의오라마지시라 오라마지의안
히는곳니인즉 나와형데 항렬이분명호지라 엇지일시 상호지분을고집호야
하늘이정호신 료리를위반호며 너의슈양부친되시는 이딕쥬언어문은 또나를
살녀쥬신터인즉 나를나오신이드부모오 나를살나시니도부모라 그리고보면
한부모를긋치 섬기게된터에 엇지형데되기를 슬타호는노 쓸디업는고집말고
나의말을 조철지어다

은네가 홀일업시

황감호오나 분부가 이긋스오니 종금이후로 아씨을형님으로 섬기오리다
호고 그 연유를 로좌슈에게 고호나 좌슈니외가 깃거옴을 의의지 못호야 즉
시 잔치를 베풀어 두형과 은네를 정식으로 성혼케호후 각기 잔을들어 로좌
슈니외의릭제 향슈를 축슈호시 춘영이가 잔을 받들고 자리압히 썩러안즈
며 로좌슈를 향호야

시칭은 일즉이 부모가 호제호시미 고철호 단신이 런던의 문어진호니 항
상 가슴에 서리여잇스오니 만일 미거호을 혐의치 안이시면 오날브터 량위
분을 부모로 섬기고져 호나이다

(로) 그는 만만 볼가호은 말슴인가호는니 당신은 세세스족으로 이 식골에서
모다 우렷는 처디시고 이 늙은이호는 누디 리속으로 향족지위에 지는지못호
오니 웃지 감히 부즈의 의를 덩호을릿가

(춘) 이는 소칭을 외디함입시는 말슴이라 엇지 부피호 구규를 인호야 천절
호 정의를 막으시는닛가 오늘이 좌석으로 말슴호오면 령양 형데와 서랑
이 회집호야 변시 가족이 모힌 자리어늘 홀로 소칭을 직으로 외디함입시
니 엇지 원동처 안이호오릿가
로좌슈가 흰슈염을 쓰다듬으며

너가 었지 그티를 외티홍리오 나로인하야 명분이 괴피홍샤 저어홍이러니
그티가 이다지 말을홍나 다시 고집지 안이홍고 피츠에 도도록 홍것이니
나의 위람홍은 부디 귀의치 말으오

로좌슈에 업에서 그말리 썩러지니 춘영은 손에 들엇던잔을 공손이 로좌슈에
배올이고 부천 뵈음는례로 썩러절을홍나 만좌가 모다 깃거은 우숨을 말지
안이홍며 이웃 사름들이 그 광경을 보고 모다 깃거은 침이업시 말홍기를

애그 좌슈님은 었지면 북이 저리 도흐신가 슬하에 일덤 혈육이 업서 날로
한탄홍시더니 열쵸일석에 그림갓흔 썩님 두분과 단아호 사위와 준슈호
아드님이 성기셨네

아모리 슈양 썩님 슈양 아들이라도 더러케 잘들 제경이면 괴출이 안이면
일호나 셴셴홍것이 무엇이잇나

이석 구씨는 박씨가 서산 근처에 잇다고 구두쇠가 차즈간 이후로 그 하회를
듯지못하야 정하 미칠듯홍나 누구를 향하야 무려볼곳은 업고 밤에잠을 못자
코 이를쓰니 이노 만일 구두쇠가 허형을홍는 디경이면 뒤일을 었더케 처치
홍코 여러가지 생각이러라

구두쇠역지에 괴어히 츠져서 최가에게 맞기기는 흥겟지만은 제상일을 몰
나혹 못찾고 헛길을홍면 큰일나지를 안이헛나.....

데일 최가가 돈도로달나는 등스살에 못 견딜것이오 썩는 제가 서산 었던놈
의 집에가잇는지 그놈과 갓치살아서 아모말이 다시 업서스면 오히려 락형
이러니와 제성미를 번연히 아는비에.....

만일 빅반 모척을하야 제천당으로 가는디경이면 전후 내험담이 다 날러이
나 그안이 걱정인가.....

오냐 시들스럽다 아모리 앓갑더리도 최가에게는 제가 가져온 돈을 도로닉
여 쥬엇스면 고만될것이오 머나리 년인지 무엇이든지 제가 아모놈이고 맞나
서 고기를 속웃홍고 살면 이언이와 만일 제 천당으로 가서 무엇이라고 짓
거리거던 나는 입이 붓혔나 제말이 아모 소용업고 망신만 더 되도록 닷발
은 느려노앗스면 제석짓년이 감히 거두를 홍샤

추월이가 마츰 자리를 퍼려 드리오다가 제상년의 얼골을 말싹럼이 쳐다보더
니 스러지는듯홍게

(추) 마님 마님 웨 무슨 걱정되시는 일이 계심닛가
(구)

(추) 마님 | 썩네가 무엇을 잘못헛슴닛가
(구)

(추) 그러면 자근 아씨씩서 무엇을 잘못헛섯슴닛가

(구) 에그 자곤 아씨나 네가 잘못했스면 말마티나 타일넷스면 고만이지 너
가 이리케 걱정할것이냐 구두쇠의 소식이 업셔 그리흐다

(추) 에그찰 구두쇠가 엇지히셔 이척까지 소식이 업스니 짜 아마 아씨가 잇는
디를 그져 못차즌것이올시다 못차즈면 고만이지 걱정할실것 무엇잇스니 짜
을쳐 최가에 돈 썩문에오

(구) 너는 소견도업다 그짜지 돈이나 내가 스지도 안코 그티로 두엇슨닛가
도로 너여쥬면 고만이지만은 아씨인지 구기씨인지 아모놈이남아 엇어서
한구석에 썩 드러박혀 잇섯스면 도흐련마는 방정을 여전이들고 제 천덩으
로나아가셔 우리힘담을 향는날이면 그안이 우환거리나

추월이가 그말을 듯고 눈설을 삼작 삼작하며 오도커니 섯다가 상썩우스며
(추) 마담씩셔는 공연흔 걱정도하고 게시지 점은 녀편네가 단독일신이 그모
양으로 도라담이고셔 무슨말이 안이낫겘스닛가 벌써서방이 드러셔도 여간
놈이 안이 들어섯슬러인디 천덩예를 가는것이 다 무엇임닛가 너외 지미를
시삼스럼케 알라셔 조그 천덩으로 가라고 흘갑아 걱정을 안이향오릿가 설
혹 천정예를 가셔 아모 소리를 짓거리기로 무슨 겁남닛가 마담씩셔는 몇
갑절 더되게 말을 만드려 너여셔 듯는 사름마다 그의말을 고지 듯지안코
아쥬형제가 키차반으로 녀에게향야 노으심시오 그랴

(구) 나도 그렇각은 향앗다만은 세상이을 아느냐 쥬썩업는 령감마님게셔 그
년의말을 고지 드르시기도 쉽고 계집만아는 서방님이라노것이 나만 몸을
사름으로 녀일는지 나는 그런일 저런일 모도 다 근심이 되는고나

(추) 아모 녀며말고 계심시오
향더니 구씨귀에다 입을티고 무슨말을 몇마디향닛가 구씨가 미간에 썩엿던
근심빗치 스르르 풀이며

(구) 이의 누가 들을나 감안 감안히 리약을 향여라
(추) 여의 누가 잇슴잇가 듯게오

(구) 낫말은 서가듯고 밤말은 쥐가 듯는단다 그러면 심복지인향나이 잇셔야
보너 보지를 안이향나

(추) 심복지인이 엇의그리 쉽스닛가 원네 오리비는 보너보지오
(구) 네 오리비가 눈치셀르케 조세 탐지향야 올가

(추) 원네 오리비가 썩 만기로는 다시 썩아 업담이다 다른 힘드는 일은못히
도 그런 심부림은 다른놈 몇갑절 낫스니다

(구) 오나 그러면 한시밤비 어셔 보너보자

(추) 그러면 지금불너 올샤오

(구) 오이 어셔 불너오나라 안이 불너올것업시 네가 전후말을 다 자제히 일

너 보너렘어나

(추) 원네가 무어를 알름잇가 그리도 마님씩셔 즈제 일으셔야 지오

(구) 공연히 그리히 썼는구나 네 오리비가 들낙 날낙 흥난것도 부즈럽스일 이너 어셔 나아가셔 달속향야 보너렘어나

추월이가 방그레 우스며

마님씩셔는 겁도편은 만으시지 오리비가 언제는 안이드나 드릿슴잇가 별 안간에 부즈럽다고 호시게오 걱정 마르십시오 나아가 일으겟슴니다

두어거름 졸낭 졸낭 가난 추월을 구씨가 다시 불으더니

(구) 네 오리비도 보너려니와 또 그 스름을 어셔가셔 보고 은근히 티려오나 라

(추) 그 사름을 아쥬 티리고 을싸오 문져 원네말로 의론부터 히보고 오논것 이 엇더할싸오

(구) 오- 네말이 올라 아모도 안이드도록 의론을 문져히셔 그 티답을 드리 보난것이 가할싸보다

에그 고것 약기는 한이업셔 나는 너 안이면 잠시 못 견디겟다 추월이가 나아가더니 거미기에 도로 드러와 구씨를 향향야

(추) 마님씩셔도 이즈시고 원네도 밋쳐 생각지를 못향얏지오

(구) 웨 도로 드러오네 무엇을 니가 이젧서

(추) 오리비 이번길이 쥬만을 모로난티 로자돈이나 너너히 가지고 가야 안 이흠닛가

구씨가 샘썩놀나며

에그 참 이런 정신보아라 앓가 생각스지호고 총망중에 도로이젧구나 고것 같스록 영민도호지 나는 샘아캐 생각지 못향는것을 고것은 생각을 호얏지

호며 추월의 등을 썩々 두다리논티 추월이는 획 도라셔며

에그 마님 급호티 웨이리고 계심닛가 어셔 얼마던지 쥬십시오

구씨가 벽장을 열고 쥬고마흔 가방에서 지폐 이십원을 니여쥬며

(구) 아만호면 되겟지

(추) 이리쥬시오 남으면 도로 갖다 밧치고 모즈라면 망문 투석 이라도호고 일만 잘 보라지오

추월이가 죽시제 오리비를 가보고 이르기를

오라반나 그스지 권연 장스를 고만두고 이번일만 잘보아 드리면 혼번슈가 날러이니 아모쥬록 힘서 잘알아보고 오시오

추월이 오리비는 안동 네거리에서 담비 장스호는 흥갑이라 갑이가 본러히 욱 만은놈으로 그말을 드르니 비위가 벗셔 동향야 죽시제 누의 쥬난 돈을

너 보너렘어나

(추) 원네가 무어를 알름잇가 그리도 마님씩셔 즈제 일으셔야 지오

(구) 공연히 그리히 썼는구나 네 오리비가 들낙 날낙 흥난것도 부즈럽스일 이너 어셔 나아가셔 달속향야 보너렘어나

추월이가 방그레 우스며

마님씩셔는 겁도편은 만으시지 오리비가 언제는 안이드나 드릿슴잇가 별 안간에 부즈럽다고 호시게오 걱정 마르십시오 나아가 일으겟슴니다

두어거름 졸낭 졸낭 가난 추월을 구씨가 다시 불으더니

(구) 네 오리비도 보너려니와 또 그 스름을 어셔가셔 보고 은근히 티려오나 라

(추) 그 사름을 아쥬 티리고 을싸오 문져 원네말로 의론부터 히보고 오논것 이 엇더할싸오

(구) 오- 네말이 올라 아모도 안이드도록 의론을 문져히셔 그 티답을 드리 보난것이 가할싸보다

에그 고것 약기는 한이업셔 나는 너 안이면 잠시 못 견디겟다 추월이가 나아가더니 거미기에 도로 드러와 구씨를 향향야

(추) 마님씩셔도 이즈시고 원네도 밋쳐 생각지를 못향얏지오

(구) 웨 도로 드러오네 무엇을 니가 이젧서

(추) 오리비 이번길이 쥬만을 모로난티 로자돈이나 너너히 가지고 가야 안 이흠닛가

구씨가 샘썩놀나며

에그 참 이런 정신보아라 앓가 생각스지호고 총망중에 도로이젧구나 고것 같스록 영민도호지 나는 샘아캐 생각지 못향는것을 고것은 생각을 호얏지

호며 추월의 등을 썩々 두다리논티 추월이는 획 도라셔며

에그 마님 급호티 웨이리고 계심닛가 어셔 얼마던지 쥬십시오

(구) 아만호면 되겟지

(추) 이리쥬시오 남으면 도로 갖다 밧치고 모즈라면 망문 투석 이라도호고 일만 잘 보라지오

추월이가 죽시제 오리비를 가보고 이르기를

오라반나 그스지 권연 장스를 고만두고 이번일만 잘보아 드리면 혼번슈가 날러이니 아모쥬록 힘서 잘알아보고 오시오

추월이 오리비는 안동 네거리에서 담비 장스호는 흥갑이라 갑이가 본러히 욱 만은놈으로 그말을 드르니 비위가 벗셔 동향야 죽시제 누의 쥬난 돈을

뵈아가저고

(갑) 이이 추월아 내가 나서기 곳향면 그사짓것 뒤싸롬 알고 오지 조국을듯 회겟느냐 그러치만은 상현의 쉼니를향야도 발 뒤꿈치가 희다는디 단녀오면 그 마님께셔 상금을얼마나 향시겟네 한일년 담비 장스를 안이향고도 녀너히 지너겟느냐

(추) 아모렘 상덕이 잇지 향덕이 잇겟소 이번일이 마님께는 큰 관계가 되는 일인디 힘써 보아만 드리면 어려니 후향게 처분을 향시겟소

(갑) 이이 그리도 그러치 안이향다 굳게도 다리를 빼고 먹으릿단다 드러가셔 아쥬말을 엿쥬아 보고 오너라

(추) 그리향리다 엿의 가지말고 기덕리시오

(갑) 오냐 걱정말고 얼푹 담여만 오너라 어— 인제야 허리씨를 한번 쉼너는 것이로구

(추) 요란시럽소 썬들지 마르시오

추월아가 한다름에 제상현의 집으로 도로 드러와 구씨를 보고

(추) 마님 제 오리비가 아쥬 괴악향것 이야오

(구) 웨 그리너가기가 실라고 향더냐

(추) 가기는 간다면셔도 인스도리 모로는 말을 작고향기에 쉼네와 이씩셔지

싸흠만 향다가 도로왔습나다

(구) 이것아 싸흠은 웨향엿느냐 그리셔 네 오리비놈이 무슨 인스 도리업는 말을 향더란 말이나

(추) 이것봅시오 다른것들은 모로겟습나다 마는 쉼네 오리비야 그런입을 엿 지 빼여 늦습닛가 사름긋지 안이히셔 그러리 말리 입씨름만 향다가 드러왔세요

(구) 무엇이라고 향더냐 그놈이 나를 욱향드냐

(추) 아모리 미련향기로 마님 욱이야 향겟습닛가 마는

(구) 갑갑향다 그러면 어셔 리약이를 좀향여라

(추) 쉼네가 마님쥬시던 로자돈을 굿다쥬고 속말을 다훈후 어셔 굿다오라고 향얏더니 저도 마님일이 걱정이되야셔 가기를 일을 말이나고 신들메를 급 허향고 나서더니 다시 무슨 생각을 한참 향고셔 도로 쥬져안즈며 향난말 이 이일이 적고도 큰일인디 슈리 북훈담여 오듯만향면 모로건이와 단단히 알고셔야 도라오자면 이길이 조만이 업는디 놀마다 전벽식이나 착실히 별 어 지너는놈이 그러케 녀려늘 장스를 못향면 남의 일슈일슈는 무엇으로 무러가고 처가속은 무엇을 먹여 살이잔 말이나고 바로 마님께서 녀너히 처분을 향셔셔 전단이나 향하를 향신다면 모로건이와 그러치 안으면 갈슈

가 임다고 잡바저오니 원네가 엇지하니 열아 안이남잇가 뒤은덕으로 잔씨가 굽어난 누의를 생각하기로 아싸위 슈작을하니 마나니홍다가 마님께 서기덕이 싯듯홍와 그덕로 드리왔습니다 예그 텨항에 눈섭만썩도 똥이나 올 위언

구씨가 추월의 앙금에 또 속고 쯤그일도 조금항야 추월을 남으려는 말이라

(구) 예- 미거할것 제말이 그러커던 소원덕로 다히 주마항고 얼뜻떠나 보 니지 일조는 점점 느껴가난디 닥호기만 항다가 도로 드리 왔단말이나

(추) 마님 분부도 안이듯고 엇지 원네가 임의로 허락을 함닛가 그도 그러코 제 오리비가 뒤 일에 거행을항고 돈을 줍사사 항는것이다 무엇임닛가 상 텨 부모라니 쯤식이 부모일항야 드리며 돈을 달시오

(구) 이이 그러치 안아항다 저인들 여복히셔 그런입을 벌냈겟느냐 니일만 잘보고 오면 그사짓 전만이다 무엇이나 걱정말고 쯤다오면 제말한가지로 돈 만량만 주마더라고 일너셔 어서 썩나 보너여라

(추) 원네 말로 일으면 고지 듯겟습닛가 원네가 나아가 불너올것이니 마님께 쯤히 분부를 항심시오

(구) 그리고보면 다른것들눈에 띄우기도 쉽고 장황 시럽기만흔디 내 친필로 성사후 일만량 출급이라노 표를 써셔 줄것이니 쯤다 주렴은나

(추) 에그 망척시러워라 마님께셔 이리것들에게 슈표가 다 무엇임잇가

(구) 관게치안타 그 슈표를 누가 불러이나 고집말고 내 말티로만 썩하여라 항고 버루를 닦아놋코 슈표를 써져슈니 추월이가 바다들고 제오리비를 츠자

나아가더라 갑이란놈이 그표를 으더가지고 싱금덩이나 엇은듯이 믿음이 푸 군항야 가키문을 킷덕 다다걸고 서문밖으로 나셔셔 서산을 츠자가더라

박씨 부인 사건이 방안에서 단두리 아약이 흘것이 안이라 양슈 일경야 뒤썩 들어 노앗스니 아지못항난 사람이 누가 잇스리오 갑이가 서산 근처에를 차

즈 가난길로 구두쇠 쯤천일로 최가 썩겨간일로 박씨와 은네가 서로 맞나 로좌슈 집에 잇는일로 갈출영 차두형 두사람이 박씨와 결의 남미흔 일이며

박씨가 언의늘 썩나 충청도 천정으로 간다는 소문을 령력히 엇더듯고 도라 와서 구씨에게 모다 고항엿더라

구씨가 그 일장을 듯더니 괴가 막혀 엇지할줄 모로다가 추월을 보고 의론항 난 말이라

(구) 이이 더노릇을 엇더케항면 도흐나 네 오리비가 술도 안이먹고 썩흔이 히닛가 령나업시 알고난 왓슬터인디 내일 결단 나느라고갈가 차가는 원놈 아싱겨셔 그 모양으로 말을 벗고나셔고 은네란넌은 괴스건 멀죽이 썩여 보닌다는것이 그년의 슈양아비 로가의 집으로 쯤더란 말이나

(추) 글세울시다 일이 공교히도 되었지요
 (구) 듯지 안이히도 내 험담이 희괴 망측하게 낫슬터인디 분골리 흘슈는 업고 찰아리 내가 저 처라도 할야 죽는 것이 올릿다
 (추) 에그 마남도 망영이셔라 그 짜짓 일에 저 처를 할셔오
 몇히안정은 처란이 저의 어머니 자처 할겓다 난 말에 와락 터여들어 저의 어머니 무릅우에가 폭 업터리며
 에그 어머니 어머니 썩셔 도라가시라 거던 저부터 죽여 줍시오
 추월이가 처란이를 잡아 니르키며

(추) 자근 아씨는 웨일리 종작업사 구르십시오 마님께셔 화가 나서셔 그리 시지 웨 지금 도라가시는 줄 알르시오 꼭득이나 마음이 슈란흥신티 공연히 그리시오 구러

다시 구씨를 향할야

(추) 마님 웨 공연한 걱정을 할고 게심닛가 원네가 엇그제 엇줍던 말슴을 이 즈섯슴닛가 그티로만 할면 아모후환 업슬터인디 웬 근심을 할고 게셔오

(구) 내일이 할도마가든 잇가 그것은 잘될는지 알슈가 잇나냐

(추) 안이되기는 웨 안이되여요 아모 걱정 말으시고 원네께만 쓸러 맛기십시오 마님 가슴이 시원케 할야 드릴게오

(구) 오냐 이디경된 이상에 그티로 안졌다가 벼락을 마질슈가 잇느냐 어셔 쥬션을 할야 보아라 돈은 얼마나 들던지 상관 안이 할다

홍갑의 처남 조선각이논 본리 동리 터상으로 어려셔 동경에 건너가 유술겨 검을 비은조이라 경성에 올라와 아직 성업을 붓잡지 못 할고 서울언의 천구의 집에와 유숙 할며 제 미부 홍갑을 종종 츠자와 보며 그 소청 할는 일이면 불페 풍우 할고 보아 쥬난터인디 조선각에 효용 할것을 추월이가 익히 아논고로 즉 시제 오리비 집에가 안져 조선각을 청할야 다가 비밀 의론 할 난 말이라

(추) 스돈님 썩셔 다 아르시는 터이니 이런 말슴이지 우리 집안이 려승지되 샹덕이 안이면 단호로를 살야 늘슈가 엇슴닛가 그런즉 우리 저 할자 되야 서논 그 덕 일을 엇의 썩지던지 힘써 보아 들러야 도리에 당연치안이 흠닛가 (조) 아모럼 다 일을 말슴이 오닛가 상하지분의 난 고만 두고 쥬익된 의리로 할 터도 환난 샹 덕 소사에 정성 것보아 들여야 올치오

(추) 그런데 내가 이런 말슴을 엇쥬면 엇더케 드르실 난 지오

(조) 무슴 말삼이 온닛가

(추) 사돈님께셔 저러케 미실 미가로 게신 것이 하도 썩히셔 일상 걱덩 할던 츠에

덕에 큰일 할가 저가 싱겓 난디 그 일은 썩 사돈님이 안이면 못보아 드리겓

고 그일 곳 잘보아 드리면 사돈님도 한뫼을 잠으실것이오 우리 오라반이
 도 그뒤에 해롭지 안아홀터이야오
 (쥬) 디관절 무슨일이야오 말삼을하오 드려보아서 너가 녀넉기 담담 흘만흔
 일이면 하여보시오

(쥬) 에그 사돈님도 이왕 알르시논 일이니 말슴이지 우리딕 마님계셔 천스
 만스에 그리실것이 업지마는 다만 그며나님으로 히셔 가슴이 아쥬 숯등결
 이 되엿셔오

(쥬) 그며나님이 무던하다는딕 웨 가슴이 라섯단말이오

(쥬) 그분의 시시 비비논 우리가 귀론할것 업습니다 엇더히던지 시어머니
 며느리 사이에 아쥬 원슈척이 되여셔 두분중에 누구던지 이세상에 업셔져
 야만 아모일이 업슬터인즉 우리 되야셔야 다만 옷훈가지라도 엇더입난 마
 님편들지 그딕 문전을 버셔나셔 이놈 저놈에게로 너머단이란 아씨편 들겿
 습잇가 만일 아씨을 진시 처치를 안이하얏다는 딕망신도 점점 더 되고 나
 종에난 마님께 무슨 험담을 뒤집어 씨을난지도 모로겿스닛가 마님씩셔 누
 구던지 그며느리를 이세상에 업식만쥬면 저산을 반분이라도하야 쥬시겿다
 고 하셔오

쥬선각이가 추월의 말을 듯고 무슨 생각을 혼참하다가

(쥬) 그리하오 그사짓일이 어러울것 무엇잇소 내가 격검을 즐업하야 아모리
 장뎡 남조라도 압히 어루디지를 감히 못하난디 여간 녀조하나야 처차하랴
 면 여반장이오 또 내게 잇난 비슈가 세계에 몇지 안이 되논것이라 번듯만
 할면 사들의 머리 추풍 나엽 일반으로 썩썩 썩러지니 무엇이 힘들것이 잇
 겿소 그러나 그분이 지금 엇의가 잇나오

(쥬) 에그 그러시면 작히나 좃스오릿가 우리 오라바지가 그 아씨 거취을 일
 일히 도스글여 왓논디 아달 열일헛늘 썩나셔 총청도 천뎡 박찰판딕으로 갓
 다하니 중로 엇의가셔 썩직키고 계시다가.....

(쥬) 거정 말으시오 그늘 썩셔나기만 할면 자지디 마루딕이애가 썩직히고
 잇다가 니칼흔변만 번썩할면 일리다 될터이니 그는 다시 녀넉말으시오 그
 러나 미스논 불여 트든이라논디 이와긋쳐 종티한 일을하면서 당신 말슴만
 듯고는 될슈가 업스니 마님을 좀 뵈옵게하야 쥬시오

(쥬) 그는 어렵지 안이하셔오 지금이라도 나만 싸라가심시다 마님께 엇쥬아
 서 천히보시고 의론을 하시게 하을것이니

(쥬) 그러차 안이하오 내가 평성에 그딕에를 안이 단이든터에 별안간에 너
 정에를 드러가다가 슈다 소술에 눈에 쓰우면 의심을 너기 쉬오니 될슈가
 잇소 너 생각긋히셔도 마님께셔 일가딕애나 가시논것처럼 슬몃이 엇의

종용은 짐으로 나오셔서 너게 등지를 하시면 아모도 모르게 너가 뵈옵고 말씀도 듣고 또는 성스후에 엇더케 처분하신다는 승락을 든서히 밧다야 안이 올릿소

(갑) 을치 그말이 썩을른 말이로군

(추) 그러면 그러케 엇슈아서 되도록 할야 볼것이니 잠서 기다리고 계십시오

추월이가 급히 구씨를 드러와보고 쥬씨의 항던말을 죄하니 구씨가 티든히 반가워셔

(구) 아이 그 사람이 너일에 그러케 열심을줄은 몰랐구나 그러면 너가 어디로 가 안져셔 그 사람을 청히올싸 네 오리비집이 종용할지 안이 할냐 너싱각 갖히셔도 네 오리비 집이 종용 곳할면 이싸 밤이 이숙할거던 나아가서 맛나보지

(추) 마님 처분되기로 하심지오 원네 오리비 집에 아모도 드나드는 사람이 업고 아쥬 종용은 하와요 그러면 그되로 가서 일을싸요

(구) 오나 그리히라 아이 남의게 중되 할일을 부탁할면서 엇더케 이악이만하고 허여지느냐 번화이 료리집의가 음식은 차릴것 업시 돈을 줄것이니 네 오라비 집에서 무슨 먹을것을 좀작만 할라고 식이여라

하고 지폐 몇장을 너여쥬니 추월이가 바다가지고 지폐를 뒤적 뒤적할며 에그 졸지에 무어를 작만 할라나

구씨가 지축을 할며 이익 망상거리지 말고 어서가 보아라

추월이가 티답을하고 즉시 흥갑의 집으로와 그 돈 삼분에 이는 제낭락을 할고 그 남아지로 술잔 국슈 그릇을 설비할야 노코 기다리더라

즈리 발등에 불을 썬라 할는 구씨가 엇지 시간을 기다리고 락연히 잇슬아오 치마 썬익이를 뒤집어 스고 하인도 안이다리고 흥갑의 집을를 차자와 쥬션각이 오기를 눈이 짜지게 기다리고 잇더라

쥬션각이가 추월의 말을 듯고 쥬션 하락하고 즈리 처소로 도라와 공곰싱각 할며 혼조말이라

너가 비록 지빈 무의할야 오늘날 이디경으로 잇스나 마음은 불의의 지산을 취할야 부요히 지니는 즈를 닛소하고 잇는터인디.....

그집 너용은 조세히 알지는 못할지마는 소위 추월의 말을 드르닛가 대강 추척할만 할디.....

돈 그백원의 욕심을 너여 무죄한 사람을 죽이면 나브터 큰 죄인이 될터이오.....

네가 만일 경선히 실타 하였다는 그듯한 계집에 심장에 엇던놈을 식이던 지 그여히 제뚱을 헝헝교야 말터인즉.....

찰하리 네가.....
하고 별씩 이러나 시계를 드러다 보고 아모말 업시 흥갑의 짐으로 가더라

추월이가 쥬씨의 오눈것을 보고 반가히 마조나와 마즈며
(추) 사돈님 인제야 오심닛가 우리딴 마님계셔 친히 뵈옵고 말을 하시라고
벌셔 오셔서 기더리시는데오

(조) 좀시 관계되는 일이잇셔 좀 느젼슴이다 러승지딴 마님계셔 말셔 오섯
셔오 터둔히 황송함이다

추월이가 안으로 썩루루 드러가며
(추) 마님 쥬모가 지금여기 왔슴이다 드러오라고 할쏘오

(구) 그럼 드러오리지 중티흔 일을 부락하논디 너외가 다 무엇이냐
추월이가 다시 나와서

(추) 사돈님 이리 드러오십시오 우리딴 마님계셔 너외할실것 무엇잇는야고
말슴하심이다

쥬선각은 심중으로 썩 비포를하고 아모말 업시 추월을 썩라 드러가나 구씨
마루 뒷호로 마조나아오며

(구) 이이 추월아 이리로 올라 오시라고 엇쥬어라 우리더에 무슨 흥허물이
이겟느냐

(추) 사돈님 마루 위로 올라가십시오 마님계셔 청하시논디
쥬선각은 짐짓 쥬져 쥬져하며

(조) 황송하오이다 엇의를 올라오라고 하심닛가
(구) 에그 그러할실것 업소 지금 처음 상면이지마는 구면이나 답지안케 쥬
명은 드러터이고 썩는 년괴로말하면 너 독하벌이나 되논디 무엇이 시스려

오
선각은 그말에 못익의는 모양으로 마루 위로 올라가 혼편에가 길치워 안젼
논디 구씨가 연히 입맛이 붓는 슈작을 느러놓논디

(구) 에그 드러니 아죽 덕도 못덩하고 킨디에 서설하다하니 범빅사가 여복
구식 하겟소

(조)
(구) 그러나 이런말이 급하저마는 동경셔 여러히를 지너셔 쥬흔 포부들 가
젼다하니 녀오나 감사하오

(조) 포부는 아모것도 업고 여간 유술과 격검을 디강 비왔슴니다
(구) 그것이 적은 포부야오 이 사람의 이략이를 추월에게 디강 드러섯건이와

네가 만일 경선히 실타 하였다는 그듯한 계집에 심장에 엇던놈을 식이던 지 그여히 제뚱을 헝헝교야 말터인즉.....

찰하리 네가.....
하고 별씩 이러나 시계를 드러다 보고 아모말 업시 흥갑의 짐으로 가더라

추월이가 쥬씨의 오눈것을 보고 반가히 마조나와 마즈며
(추) 사돈님 인제야 오심닛가 우리딴 마님계셔 친히 뵈옵고 말을 하시라고
벌셔 오셔서 기더리시는데오

(조) 좀시 관계되는 일이잇셔 좀 느젼슴이다 러승지딴 마님계셔 말셔 오섯
셔오 터둔히 황송함이다

추월이가 안으로 썩루루 드러가며
(추) 마님 쥬모가 지금여기 왔슴이다 드러오라고 할쏘오

(구) 그럼 드러오리지 중티흔 일을 부락하논디 너외가 다 무엇이냐
추월이가 다시 나와서

(추) 사돈님 이리 드러오십시오 우리딴 마님계셔 너외할실것 무엇잇는야고
말슴하심이다

쥬선각은 심중으로 썩 비포를하고 아모말 업시 추월을 썩라 드러가나 구씨
마루 뒷호로 마조나아오며

(구) 이이 추월아 이리로 올라 오시라고 엇쥬어라 우리더에 무슨 흥허물이
이겟느냐

(추) 사돈님 마루 위로 올라가십시오 마님계셔 청하시논디
쥬선각은 짐짓 쥬져 쥬져하며

(조) 황송하오이다 엇의를 올라오라고 하심닛가
(구) 에그 그러할실것 업소 지금 처음 상면이지마는 구면이나 답지안케 쥬
명은 드러터이고 썩는 년괴로말하면 너 독하벌이나 되논디 무엇이 시스려

오
선각은 그말에 못익의는 모양으로 마루 위로 올라가 혼편에가 길치워 안젼
논디 구씨가 연히 입맛이 붓는 슈작을 느러놓논디

(구) 에그 드러니 아죽 덕도 못덩하고 킨디에 서설하다하니 범빅사가 여복
구식 하겟소

(조)
(구) 그러나 이런말이 급하저마는 동경셔 여러히를 지너셔 쥬흔 포부들 가
젼다하니 녀오나 감사하오

(조) 포부는 아모것도 업고 여간 유술과 격검을 디강 비왔슴니다
(구) 그것이 적은 포부야오 이 사람의 이략이를 추월에게 디강 드러섯건이와

흐면 힘을써 주게 되면 풀을미져 은혜를 갑소리다

(조) 예- 티강 말씀은 드릿습니 다만은 이런 중되호 일에 무심히 티답은 호
엿습이다마는 다시 곰곰 생각호은즉 뇌용도 자제히 알지못호고 경션히 거
스항기가 극는호오니 말씀엿줍기는 미안호오니 널니 슈소문을호시면 저보
다 몇갑절 효용호 사람이 만히 잇스오리니 다른 사람과 의론 호시는것이
필요호듯 호오니 다

구씨가 그말에 눈이 둥그리져서

(구) 그게 무슨 말씀이오 나 무도 설티가 달나 총암 절벽에가 션다고 이티의
론을 아모나 향호야 혈일이오닛가 그런 말씀 마르시고 이 스름호나 살니
는 일례로 일을힘써 보아 주시면 그 은공은 눈에 흑드러 가기전에 잇지
안이 호을리다

(조) 정그러 호실티이면 말씀티로 거행호야 보리다마는 무슨 목적인지 조
세 모로고는 성 사람을 살히호는슈가 업스니 며느님과 엇더케 관계가 되
야셔 괴어히 죽이라고 호시는요

(구) 그 관계 말씀을 호조면 괴가 막하지오 우리티에 뇌속에 잇는 진정을
바로 말씀치 안으면 셔어이 뇌이기 쉬오닛가 리약이을 호오리다

(츄) 참 그리시지 크나 큰일을 부락호시는 이상에 무슨 은취호실 말씀이 잇

게 썸잇가 마님께셔 말씀호시기 불편호신티 원네가 티신 리약이를 합지오

(구) 오나 뇌속은 네가 다 아노티이니 조세 조세 멀습호여라

(츄) 사돈님이 이처럼 못지 안이호신티도 마님께셔 속말습을 다 호실티인티
루루히 무르시노바에 은취할것 무엇잇습닛가 에그 마님께셔 우리티 령감
썸 후실로 드러오셔셔 아다님은 못나으시고 다만 썸님호나썸 나으셨는티
조데는 괴출아 안이저오

(조) 그리시던가오 그러면 지금 약호조는 며느님이 그조제에 실뇌인가요

(츄) 예- 그리오 남의 조손 남의 부모사이에 화순히 지뇌조호면 두편모음
이 다 착호야 피초 자겨지심이 안이 성길터인티 마님께셔는 아못조특구
순히 지뇌시라고 열가지 빚가지를 참기로만 작명이신티 그아씨는 더욱 괴
탄이 업셔셔 그어머니를 넷투리로 알고 부정호 흥실이 무소 부지호야 심
지어 서방님도 안이계신티 조식을 비엿다가 락티셔지 호것을 마님께셔야
모도 모로게 락티호것을 쳐쳐호시고 아리것을 든속호야 일절 입맛게 그티
말을 뇌지 못호게호셨스니 그량반이 적어 지각이 잇는터 곳호면 심분감
샤호야 회귀 조신을 호터이어날 도로혀 마님을 담복 뇌보고 누가 알거나
말거나 괴탄이 일호업시 부정호 흥실을호니 마님이 생각다 못호셔셔 령감
썸셔 의론을 호시고 서방님 썸업호고 오시도록 친정으로 가 잇스라고 보

너시라 드디 중노에서 도망을야 되 모양이 창피하게 만들썤 안이라 마님
험담을 각가지로 지어너여 장 부지하경이 될터이닛가 이런뜻을 두시는 것
아시오

(조) 여보 너가 비은 제조로 말하면 박씨 부인 하나 처처항기는 힘반뿐어
처허비를 안이하게 소마는 나를 중시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녀이어 실상을
감초고 것말로 속이어 그일을 항도록하니 이는 비든 일에도 방허가 될썤
안이라 사람의 티점이 안인즉 더 길게 말할것업시 나는 물너가갓소

항고 이러나 나아가라하니 추월이가 문을 가로막으며

(추) 웨이리셔오 무슨 실상을 감초엇다고 감당을 두셔오

구씨를 도라보며

마님 마님 귀왕 말씀이 논터이니 이실직고를 항는슈박게 업습니다

구씨는 추월의 말을 디답지못하고 다만 두쌍이 벌기져서 엇지홀줄 모른디
추월이가 련히 이리저리 열네 발을치며 무슨말을 항라하논디 구씨가 다 죽
어가논 목소리로

(구) 에그 너 팔즈가 엇지면 이러케 험상홀고 오냐 나는 모른다 네싱각되르
항렴은나

(추) 사돈님 처음에는 바로 말씀항기가 무엇히셔 걱정을 디강하야 열쥬엇습

니다마는 인제야 무슨 말씀을 못항겟습잇가 그런것이 안이라 아씨가 식어
머님을 넷 두리로알고 불미혼일을 것침업시하는 눈치를 마님께서 알으시
고 엇더케 처치를실싱각을항시나 아모 획척이 업스다가 항가지 계교
를 디셔서 식은안 최가에갓로 식집을 보니라고 항셧드랍니다

(조) 그제 무슨말이오 량반의뒤 도리에 며느리를 다른디 식집을 보니라니
구씨가 조선각에 말에 붓그림을 못의의여 이쥬진 추월의게 구실을 붓는다

(구) 추월아 네가 그제 멀이나 절이나 무두 무마히 머나라를 식집을 보니라
항얏다하면 말이되느냐 아모리 흥허물이 업셔 한집안터 곳기로 홀말이 잇
고 못홀말이잇지

(추) 마님께서는 썤흔 분부도 항심나다 피초에 걱정을 항고셔야 무슨 큰일
을 부락홀닛가

항더니 구씨를 항하야 눈짓 두어번을항고 슬멧이 이러나 밧그로 나아가나
구씨는 추월에 뒤를싸라 나아가 으스스한 뒤스골목에가

(구) 무슨 말항라고 눈짓을 항얏느냐

(추) 마님께서는 아모일도 못항겟습니다 쇼가다려 아모 말을항면 무슨 판계
가 잇다고 원네를 남으려슴닛가 제가 약쇼되르 일을잘항면 다시 말할것도
업고 만일 썤 소리를항고 싱먹거든 열녕 열녕 도흔말로 디만지고 잇싸술

너시라 드디 중노에서 도망을야 되 모양이 창피하게 만들썤 안이라 마님
험담을 각가지로 지어너여 장 부지하경이 될터이닛가 이런뜻을 두시는 것
아시오

(조) 여보 너가 비은 제조로 말하면 박씨 부인 하나 처처항기는 힘반뿐어
처허비를 안이하게 소마는 나를 중시도 어리석은 사람으로 녀이어 실상을
감초고 것말로 속이어 그일을 항도록하니 이는 비든 일에도 방허가 될썤
안이라 사람의 티점이 안인즉 더 길게 말할것업시 나는 물너가갓소

항고 이러나 나아가라하니 추월이가 문을 가로막으며

(추) 웨이리셔오 무슨 실상을 감초엇다고 감당을 두셔오

구씨를 도라보며

마님 마님 귀왕 말씀이 논터이니 이실직고를 항는슈박게 업습니다

구씨는 추월의 말을 디답지못하고 다만 두쌍이 벌기져서 엇지홀줄 모른디
추월이가 련히 이리저리 열네 발을치며 무슨말을 항라하논디 구씨가 다 죽
어가논 목소리로

(구) 에그 너 팔즈가 엇지면 이러케 험상홀고 오냐 나는 모른다 네싱각되르
항렴은나

(추) 사돈님 처음에는 바로 말씀항기가 무엇히셔 걱정을 디강하야 열쥬엇습

니다마는 인제야 무슨 말씀을 못항겟습잇가 그런것이 안이라 아씨가 식어
머님을 넷 두리로알고 불미혼일을 것침업시하는 눈치를 마님께서 알으시
고 엇더케 처치를실싱각을항시나 아모 획척이 업스다가 항가지 계교
를 디셔서 식은안 최가에갓로 식집을 보니라고 항셧드랍니다

(조) 그제 무슨말이오 량반의뒤 도리에 며느리를 다른디 식집을 보니라니
구씨가 조선각에 말에 붓그림을 못의의여 이쥬진 추월의게 구실을 붓는다

(구) 추월아 네가 그제 멀이나 절이나 무두 무마히 머나라를 식집을 보니라
항얏다하면 말이되느냐 아모리 흥허물이 업셔 한집안터 곳기로 홀말이 잇
고 못홀말이잇지

(추) 마님께서는 썤흔 분부도 항심나다 피초에 걱정을 항고셔야 무슨 큰일
을 부락홀닛가

항더니 구씨를 항하야 눈짓 두어번을항고 슬멧이 이러나 밧그로 나아가나
구씨는 추월에 뒤를싸라 나아가 으스스한 뒤스골목에가

(구) 무슨 말항라고 눈짓을 항얏느냐

(추) 마님께서는 아모일도 못항겟습니다 쇼가다려 아모 말을항면 무슨 판계
가 잇다고 원네를 남으려슴닛가 제가 약쇼되르 일을잘항면 다시 말할것도
업고 만일 썤 소리를항고 싱먹거든 열녕 열녕 도흔말로 디만지고 잇싸술

먹을적에 슬몹이 약을타서 그사짓놈 죽여 업섯스면 그만이지 무슨 걱정이
서오

(구) 네계교가 되기는 흥얏다마는 졸디에 약을 잇의가서 가져온든 말이나

(추) 에그 마님씩서논 이져바리셨나베 아씨를 먹이라고 구히두었다가 그모
양으로 가게되닛가 안이 먹인약이 현내 쥬면이속에 그져 낫는데오

(구) 을치 그것이 있고나 그러나 그거를 잇씩서지 네 쥬면이에다 너어 두엇
드란 말이나

(추) 너어두기는 무엇흥조고 너어두어오 오날 이일이 엇더케 될줄몰나서 잇
다 감초아 두엇든것을 일부러 가지고 왔슴이다

(구) 에그 고것 령리도흥다 엇지면 그 총망중에 그 생각이 드릿더나 그러면
드러가 모다 아약아를흥야 들니되 락티혔다고 흥것은 바로 말할것이업다

조선각은 눈치가 본리 짜른사람이라 추월의 눈짓흥야 구씨를 디리고 나가는
량을 보고 심히 궁금흥야 문을 쇼리업시 열고 구씨에 뒤를짜라 담 모퉁이에

은신을흥고 추월과 계교 덩흥는것을 다듯고 감안히 다시 방으로 드러와 시
침이를 뚝뚝이코 락연시럽게 안젧난디 구씨난 밤중 지척을 불변흥씩 일이라

그줄 더줄 모르고 드러와 쇼견보이는 슈작을 느러놓는다
(구) 아싸 다투가 참아 붓그러온일이 만아서 더년을 남으릿더나 로혀서 드르

시지나 안이흥섯는오

(조) 천만의외 말씀도 흥심이다 부인씩서 아모말씀을 흥시기로 로혈이가잇습
닛가

(추) 로혀실이가 잇나요 현내다려 걱정흥시난디 그러나 마님씩 걱정은 드를지
언덩 흥던말씀은 다홀터이을시다 에그아모라도 사당을기쁘히 모로시면 아다

님의눈이 시퍼러케사라 계싧디 그며나임을 타인에게 식집을 보니라흥얏다
면 변괴로녀이 시겟지마는 사세가 엇지흥사난 슈가업서 그리된일이을시다

(조) 어셔 리약이나흥시오
(추) 그리 최가에게 쇼기를흥얏더니 최가가제인스로 그티로잇슬슈가 업다고

마님씩 전천이나 갖다드렸슴이다
마님씩서 그돈밖으시기는 창피흥시나 최가가한스흥고 도로가져가지를 안

이흥닛가 차차덕여줄실초로 아즉바다 두싧터이싧디 중로의셔 고만도망흥
얏슴이다 최가는그돈을 도로닉여쥬어도 밧지를안이흥고 아씨만차즈노으라

고 씨를더럭더럭쓰는차 서산갈가에 집잇다는 소문을 드르시고 덕흥인구두
쇠를식여 최가와함씩 서산으로 차즈보닛는디 여려늘회보가 업슴으로 마님

씩서 우리오라마지를 보닉서서 즈제하람지를 흥야본즉 최모와 구두쇠는
아씨을 디려오라컨니 갈가는 안이노으라커니 너로닷토다가 필경본군에 정

장사지되었는데 원님이 명찰하시여 갈가는 낙송을 하고 최모가 아씨를 따라가
게 되었더니 공교히 원님이 불선불후에 같이 시고 그고를 좌슈가 서리근슈로
잇서갈가에 청전을 열마는 바다 먹었는지 그송스를 뒤집어 노아 구두쇠는 엄
형외슈하고 최모는 런동갓치를 너쫓차보닐후 아씨를 갈가의게 너여먹기얏
는디 엇더케된 세음인지 아씨가 갈가와 너와는 안이되고 남리지의를 밋고
우리덕마님을 목슬고로 몰아무슨거조를 할라한다하니 사돈님싱각 할야보
심시오 아씨를 진작처치를 할야 업서야지 그디로두었다는 마님씩 무슨불칙
훈일리 밋칠는지 알슈잇슴잇가 그리서이거조를 사세부득이 츠리신담이다
추월의말이 거오긋차자 구씨가 선각의 압호로 닥아안지며

(구)에그 말이났스니 말이지 이 사람의 망신하고 안이하기는 당선슈중에 달
여스니 힘을써 주시기를 하늘갓차마라오 이 사람도 인정이지 잠시라도 너
즈식되었던 것을죽이고 십어이런뜻을 두겟소마는 지금추월에게 디강드르
섯스니 말이지 저를그디로 두엇싸는 이 사람몸이 연의지경에 찌러질는지 모
로겟스닛가 엇지하는 도리가업서 당신씩 간청하는것이니 아모리어려우셔
도 일만잘보아주시면 내 가산이 변변치는 못하나 웃쪽같으듯 반분을 할야
드리시오

(효)그리할야 보시오 그 디담훈일리 얼러올것이 잇슴잇가 그러나 당신며는

님이 부정훈 형실이잇서 이히는 분명 비엿던가오 실정을 말하기로 제야 즉
당선심복지인으로 식이시는일을 거행할라는데 무슨관계가 잇슴잇가
구씨가 무엇이더라고 디담훈줄을 모르고 쥬져쥬져하는디 추월이가 앙큼스럽게
디신디답을 할기를

그것을 그리즈세알야 무엇하시오 즈식을비엿섯기에 락티를할야시오 안이
빈아히가 찌러졌셔오 부모되섯던터에 죽일의논하는것이 파도할신듯하시
마는 그논남의통스정 못하는말이지오 우리덕마님 당할신경우를 즈세알고
만보면 아모라도 괴이치안라고 할터이올싸다

조선각이가 구씨의거동을보고 추월의 말하는양을보니 외년을간동히나니 락
티를히나니 전후슈작이 모다근리치 안이할야 들일썬안이라 며느리를 죽이라
하는것이 심분가동할야 즈기몸에 진엿던칼을 썬여가지고 구씨를당장 질너죽
이고십은마음이 불현듯이싱기여 입으로는 슈작을할며 심중으로는 얼마썬망
서리다가 할가지계교을 싱각하고 안이나오는 우숨을살사웃고 식히는디로 다
잘할야줄거시니 아모거정말나 큰디답을훈후 거마기에 드러온쥬안을 일호스
양업서 잔득취포를 할야더라

추월이가 상머리에 안저술도권하고 안쥬도권하면서
(쥬)우리덕이 부자하시기는 이번일에 달녓고 사돈님덕과 우리천정 잘되기도

이번일에 달여 습니다 아 못조록 주의하시서 일을 하십시오

(조)그디 부탁은 두번도 말으시오 속담에 원님도 보고 환조도 탄다고 려승지딕 일 잘보아 들리는것이 못우리 일하는것인디 범연홀 리치가잇습잇가 벌셔너 속에 비포를 다하고 잇습니다

(추)아모럼 그러신줄이야 누가모름닛가 에그그러나 오날이 몇철인가 오날이 나홀 리일이보름 모레글피가 일헛슬이잇가 조세명심하섯다가 그늘첫셔벼 에 지지디고기에가 등디하고 계시다가 거스를하십시오

(조)철슈업소 부인네싱각이닛가 옛날썸 말이가셔 기디려야지 썸일헤스날 갖다가 벌셔지나코스면 그런랑피가 옛의또잇겟소

(구)참말은은 말슴이오 암만히도 디장부에 도량이 좁은계집의 소견보다달나 (조)감안이계집시오 제가딕일은 진력하야 보아드리라고 하논터에 무엇을바

라을잇가마는속담에 상년의 썰니를하야도 말뒤스금치가희다는일레로성 스후에 엇더케하시겟다는표한장을 써셔주십시오

구씨는얼똥디답을못하고목묵히안졌는디 (추)어련하실나고 그도록하시오 일인즉 그러케하시야 피츠에맞음이싱기저

마는마님왜디답을안이하심잇가 먼저말슴하신티로 계약을써셔 주십시오
오그려

(구)계약안이기로 점조는터에 내가호입으로 두말하겟는나

(추)그리도 그러치안이힘이다 계약등스에말이 안이낫스면 이어나와 귀위발 달아된이상에 안이하야주시면 마음에섭섭지를 안이하겟습잇가 귀위말슴셔 지하신티이니 아조써셔주시시오

구씨가얼똥응나을 못하것을 선각에마음이 푸구놓도록 하노라고 생각업셔지 산을분반하야 주마하야노코 그디로계약을 하야주엇샤는 그디로시행을안이 하논슈업고 지산을 분반하저니 마음에원통호 생각이드러셔 저삼주저하다가 선각의 의식이조치못하야 지는것을보고 속마음으로

에라 아모럼은 오작하랴 배천이나하논 저산에 반을논호와 준디도 오빌셔은 무려하니 그만하야도 마음만편하면 거정업셔 살터이오 그것을앗기여 계약을 안이하야주엇다가 일이성취치못하면 천척말고 만척이라도 다키상관업셔되기가 심분가려이오 또는 계약을 아모리하야주엇디리도 일이다된뒤에 추월의계 교를쓰는일이면.....할도리도 잇슬터이지

하고즉시 추월다려 지필을 가져오라하야 선각의소청티로 계약을써셔주니 선각이가 그계약을바다 단단히간수하고 조정이지는후에 서로헤여져 가논디 구씨가 천번부탁하기를

(구)범연홀리는 업지마는 그왕이사람에 일을힐써보아 주논터이니 부디실슈

업도록 주의할야 주시오
 (조)그는 다시 말씀 받으십시오 이처럼 계약까지 할야 주신터에 일호는 소홀히 할일이 없습니까
 구씨가 조선각을 작별할야 보낸후 추월을더리고 그의집으로도라오며 슈작할야 말이라

(구)이이추월아 오늘이야 내가아조니심복지인인줄 확실히 밋었다

(추)가님께서두...: 전에는 원내가 이심을 품은줄 녀이셨던가봐 하필오늘이야 심복으로 밋으셨다 하시니

(구)안이다 언제는 너가너를 안이밋은터는 안이다마는 오늘은너가 웨더욱너를 밋었다 할야노하나 너와나와 아모리 종상연간이라도 남남세리 정의로만 지니는터이오 조선각은 네오리비와 남리간이되야 연사간이 착실한터인디 조선각이가식은 말을안아듣기곳하면 내가너를위할야 죽이기까지할라 할야스나 내게당히서 너곳흔것이 세상에또누가 잇겠느냐

(추)마님께서는 별말씀을 다할심니다 조가가사돈말고 친오리비기로 상연의 일에 반덕곳하면 바로원내가 죽는다경에 이르기로 그티로살너두어오

(구)그말은 고만두고 조가가너너히 아씨라는것을 죽이기만할지

(추)너곳하말고오 조가의 지조도 너곳현이와 더구나 계약서를 할야 주셔

서 리욕으로 할기로 제평심함을 다쓰지안이 할겟슴잇가 에그아모려나 계약서는 잘히 주셨습니다

(구)그리네싱각에는 성스후에 계약서티로 지산을 다는호와 주어야 올릿느냐 추월이가 가던길을 멈추더니 팔장을 밋삭세고 눈을삼작삼작 흘참싱각할다가

(추)마님마음에는 엇더하시요

(구)글세말이다 나는기동에 떠린머리곳히서 아모두서가업고나

(추)아모거정 말으십시오 일만잘되고보면 원내가 마님속이 시원하시도록 할야드리오리다

(구)네가무슨지조로 너속을 시원하게 할야 준단말이나

(추)차차보시면 알으실셈이리 조금히무르실것이 무엇잇슴닛가 어서딛으르가셔요

(구)에그고년 갑갑하다 어서야이를 할야라 드러보자

추월이가 구씨의것으로 밋삭드러서 모괴소리만치

조가가 아씨만죽이고오거던 도흔말로 제마음이 흡족하도록 티우를 할야고원네가술을 작고권할야 취히너머들리고 마님께서 히주신표를 도로써아셔업서스면 고만될것이오 정그러못할면 앓가원네오리비집에서 엇줍던계고티로 이세상에 못잇게 할야노앗스면 고만이지 제가저승에가셔도 지산을 는호

와 달는 겹습닛가

구씨가 추월의 머리를 스다듬으며

(구) 고것게교가 비상도 좋다 삼국역에 낫스면 제갈공명 못지 안 켜다 이이네 말되
로 그 표를 써 앓는 디도 너경위에 그 디로 잇슬 수가 잇느냐 아마 전만이나 착실
히 주기는 흥여야 흥겘다

(추) 그는 마님 처분이 시시오 아모렴상덕이 잇지 하덕이 잇겘습닛가 제모음에과
히 션 션지 안이 흥도 록만 흥심씨오

이 갓치 슈작을 흥며 저기 집으로 도라오니 려송디가 려일쌔 자리가 어슈 션살는
흥야 잠을 못자고 안으로 드러오니 저기 마누라는 잇의로 출입흥고 차집마누라
와 처란이만 누어 자는 지라 혼자말로

밋도 즐기지 잇의나 드리를 가면 번번히 밤중이 되도록 안이와 이번에는 좀듯
기시게 남으려야지

량반의 집이 결단나라고 며나리가 그디경으로 부정흥실흥야 닉낫을 썩기
게 흥더니 식어미마즈 노라 낫나 응 망칙흥지고

흥며 담비흥티를 막푸여물고 안젧노라니 구씨가 압서고 추월이가 뒤를 썩라드
러오는 지라

(려) 녀편네가 잇의를 가면 얼푼단여오는 것이 안이라 밤중 썩지 무잇흥노라고

잇다 인제야 온단말이오

(구) 잠스간 단여온다는 것이 그것치 무잇이 느젧다고 이리시오 웨좁으시지도
안코 드러오셔서 이리시오 나긋치 흥으니는 밤썩도록 단여도 아모관계업
셔요

(려) 하필 관계가 잇다는 것이 안이라 집에는 처란이만 혼즈맛겨 두고 밤이들도
록 안이 오닛가 말이오

처란이가 잠을 마춤써여 감안이 누엇다가 발닥이러나 나안즈며

(처) 아바지 녀가 웨 혼즈 잇시오 차집마누라와 나긋치 흥디 아바지 썩서는 공헌
이 걱정을 흥시네

(려) 에고년 어른이 무슨 말을 흥던지 이 들이 들을 썩름이지 저다 말고 니러나 말
춤에 흥야 가지고 응

(처) 말춤에 가 안이라 분흥닛가 그러치오

(려) 그러면 분흥지 안이 흥요 어머니가 모처럼 나드리 좀 흥섯다가 얼푼 못오섯기
로 그러케 말을 흥심닛가

(려) 녀가 무잇이 라고 흥길니 네가 분흥단말이나

(처) 며느리가 부정흥실흥야 낫을 썩기 게 흥더니 식어미가 마즈노라 낫다고

와 달는 겹습닛가

구씨가 추월의 머리를 스다듬으며

(구) 고것게교가 비상도 좋다 삼국역에 낫스면 제갈공명 못지 안 켜다 이이네 말되
로 그 표를 써 앓는 디도 너경위에 그 디로 잇슬 수가 잇느냐 아마 전만이나 착실
히 주기는 흥여야 흥겘다

(추) 그는 마님 처분이 시시오 아모렴상덕이 잇지 하덕이 잇겘습닛가 제모음에과
히 션 션지 안이 흥도 록만 흥심씨오

이 갓치 슈작을 흥며 저기 집으로 도라오니 려송디가 려일쌔 자리가 어슈 션살는
흥야 잠을 못자고 안으로 드러오니 저기 마누라는 잇의로 출입흥고 차집마누라
와 처란이만 누어 자는 지라 혼자말로

밋도 즐기지 잇의나 드리를 가면 번번히 밤중이 되도록 안이와 이번에는 좀듯
기시게 남으려야지

량반의 집이 결단나라고 며나리가 그디경으로 부정흥실흥야 닉낫을 썩기
게 흥더니 식어미마즈 노라 낫나 응 망칙흥지고

흥며 담비흥티를 막푸여물고 안젧노라니 구씨가 압서고 추월이가 뒤를 썩라드
러오는 지라

(려) 녀편네가 잇의를 가면 얼푼단여오는 것이 안이라 밤중 썩지 무잇흥노라고

잇다 인제야 온단말이오

(구) 잠스간 단여온다는 것이 그것치 무잇이 느젧다고 이리시오 웨좁으시지도
안코 드러오셔서 이리시오 나긋치 흥으니는 밤썩도록 단여도 아모관계업
셔요

(려) 하필 관계가 잇다는 것이 안이라 집에는 처란이만 혼즈맛겨 두고 밤이들도
록 안이 오닛가 말이오

처란이가 잠을 마춤써여 감안이 누엇다가 발닥이러나 나안즈며

(처) 아바지 녀가 웨 혼즈 잇시오 차집마누라와 나긋치 흥디 아바지 썩서는 공헌
이 걱정을 흥시네

(려) 에고년 어른이 무슨 말을 흥던지 이 들이 들을 썩름이지 저다 말고 니러나 말
춤에 흥야 가지고 응

(처) 말춤에 가 안이라 분흥닛가 그러치오

(려) 그러면 분흥지 안이 흥요 어머니가 모처럼 나드리 좀 흥섯다가 얼푼 못오섯기
로 그러케 말을 흥심닛가

(려) 녀가 무잇이 라고 흥길니 네가 분흥단말이나

(처) 며느리가 부정흥실흥야 낫을 썩기 게 흥더니 식어미가 마즈노라 낫다고

하시니 조식된마음에 엇지니안이분히요

구씨가 스름잡아 가랴야는 야츠스자 모양으로 러승지에압흐로 와락달여 드러서며

(구)여보 그게말이라고히소 절이라고히소 니가 서방질 단이난것을 분명이알어요

(러)이거는 웬히거야 나 도화가나서 말마디나흐것인디 공현히지각업시 떠들구러 남붓그림소 고만두오

(치)어머니 고만참으셔오 아바지씨셔도 여복화가나셔야 그것케말슴을 흥섯겟슴닛가

(구)고만두지 누가무엇이라고흥는나 령감어셔나아가 줌으시기나흥오

(러)그러는 아히에게셔 오날던보가 나아왔습디다

(구)전보가와요 제몸이나성흥고 공부는잘흥다 흥앗습디닛가

(러)응 공부를잘흥야 이번시험에데일 우등성적을 엇엇는디 리일동기방학동안에 잠시단여가겟다고 흥앗습디다

(구)에그 괴룩도흥여라 켜디의엇더케 지는지 일상에 믿음에판려가 쳐지안이되더니 데몸성흥고 공부치지 잘흥앗다니 엇더케 도흔지모로겟구려 방학을언의날썸흥노어셔건너와스면 제일골을좀반가히보게

(치)옴바가와셔 언니리악이를 드르면 삼씩놀나겟지

(구)아모렘 처음드르면 기가안나막히겟는나 여보령감 더년이말을 흥니말이지 그이가 제안악과 금슬이 유난흥앗는디 보고심어셔나 안이흥는지 정보

고심허흥거던 제잘못은 덤허노코 도로디려옵시다 저도사람이지 설마또그런버릇을흥릿가

어리석은 러승지는 요악흥구씨의 궤에떠러져셔 열같은씩며

(러)그게말이라고흥오 그것을도로 디려오다니 그부정흥것을 내가 디면을 흥단말이오 아히가 설혹리허를모로고 말을흥거던 그것의 전후죄상을 다일너

준다음에야 무엇이라고 흥단말이오 그런 만부당흥말은 입밖게너지도마오 흥며 흥흥히 사랑으로 나간뒤에 구씨는츠퉁월을디리고 그밤이다시도록 무슨공

론을 쥐도못듯게 흥앗더라

조선각은 조기에게 본리져츠퉁야 잇던돈과 구씨의게부비로 바든돈 합빅여원을 몸의간슈흥고 그잇은날 지지디 고기로가셔 눈이싸지도록 박씨부인일흥을

고디흥는디 그잇은날 하오두시가량은흥야 과연니흥교군두치가 오는데 뒤에 소년남즈들이 표표흥고이상으로 억기를셔로겟고 오논지라 선각의속마음으로 아마저일흥은 박씨가안인가보다 박씨갓고보면 더러케동흥이 여럿일슈가잇다고

거미리에 그 교군이 고기위로 올라오더니 혼편길치워 교군을 내려노코 교군은 네명이 각기곰방티를 츠즈들고 바위모퉁이로 도라서며

에-여리야 저리가 좀쉬여가세

두소년은 그거무더올나와 교군것히가안즈며

오날리오셀니왔는걸 이허가지고 슈원음을 녀녀히드러가갓지

그러나 우리미씨가

이러케천정으로 가는것을 러씨집에서 알고보면 가슴이

좀쓰릴걸

쓰리기만히 이러케가는느즈와 시간만알면 구씨에 흥흥심장으로 즈릭도녀

녀히 쫓초보녀여 질녀죽이라 고 할터인디

선각이가 은신하야 그말을드르즉 그일행이 분명호 박씨부인이라 벌떡이러나

두소년압흐로가서 단정히안즈며 인사를청호다

(조)두분어룬 인사합시다

(갈)예-나는 성은갈가고 일흠은 춘영이오

이엇더하오

(조)예-그러하시겟소

교군잇는디에서 장바흔거리는 녀々히될만호 산셋뚜리에가 세스름이 솟발코

치마조안져 서로성명을 통호다

(조)두분을 일즉이비인척은 업습니다

누딕들이심잇가

(갈)예-나는 성은갈가고 일흠은 춘영이오

(조)예-그러셔오 저는쵸선각이라는 사름이올시다

이어룬은 누구신지요

(차)예-나말씀이오

나논차두형이라는사름이오

왜무슨말씀을 호실일이잇소

(조)말씀이야 무슨말씀을 호을릿가

만은 미안호오나 잠시여쭙어 불일이잇습

니다

(차)무슨일인가오

(조)저녀형이 누딕녀형이신디

엇의로가시는터인가오

(차)딕갈길이나 갈셀름이지

남의딕녀형 엇의로가는것은

알아무엇호랴오

(조)미리말씀 할슈업고

누딕녀형이신지 엇의로가시는지

두형은 눈치가셀나야 모사름이고

한번만홀터보면 그사름의즈격을

디감짐작

할는터이라 쵸선각을아모리

숨혀보와도 악의는

반점업는듯호고

말호는것이

궁금도하야

얼핏성각이들기를

덕즈를아모리

쓰더보아도

악호스상은업는듯호고

정영제소회가

무엇이잇는

모양인즉

바로말을하야

거동을좀보리라

호고춘영을

향하야

눈짓을두어

번호후

(차)로형이 무슨소회가 있는지는 알슈업스나 이처럼 지저저삼 무른니말호지
오 더너형은 총청도진잠 박참관살님되시는 부인이신디 지금근천가시는 길
이오

(조)그부인식딕은 엇의던가오

(차)그식딕서지난 귀티야 알으실것이업슴난다

(조)안이 그위말슴하시니 뜻이시니 마자일너주시기로 관제가잇슴닛가

(차)그량반디단히 슈다항다 그부인식딕은 알아무엇할랴오 그리항오 갈르쳐

쥬리다 그부인식딕은 슴청동 러승지딕이랴오

(조)예—그러항셔오 그러면 지금스청동셔 썬나오시는터닌가오 또너형이두분

이신이 혼분은누구시고 로형두분은 엇지히셔 동형을항시는 터이신가오

두형이가 암으로 와락달녀드러 눈을싸부릅뜨고

(차)이분 말문는것이 딕단히 슈상스럽다 그딕로보너 지못할것는결 엇의사는

누구인디 웨이모양으로 성화갓치무러

(조)이러케진로 하실일이 안이을시다 이사름도 더너형을위항야 온터이지 일

호반점 그른뜻은업싸오니 용셔항시고 자세흔말슴을 일너쥬십셔오

(차)그럴지경이면 딕부터 이약을항오 우리도차츰말슴을항것이니

(조)로형말슴이 그러항실듯항나 로형두분이 더너형을 엇더흔관계로 모시고

가는지 뇌용을알기전에는 나의품은마 말을세상업셔도 키구치못호겟스니 선
후를닷토고 장시간을허비할거이 안이라 먼저가르쳐쥬시오

쥬형이가 두형팔을 잡아다려 뒤로쥬셔안치며

(갈)여보게 우리가 먼저말을항야 저분의 이약을드러보세

(차)그리호썬다

항더니 다시선각압으로 밧씩드러안지며

(차)우리는 별사름이안이라 더부인과 결의남미항야 극력보호호는 터임으로

지금그천정에 가는중에 흑비상호변이잇셔도 방비호츄로 썬라가는사름이

오 뒤에잇는너형역시 그부인과 의형제를딕즌 부인인디 피츠셔나기가섭섭

히셔 동형을항는중이오 인제는시원히 다알앗스니 말슴항시오

조선각이가 벌셔이러나 두사름에게 항항야 무슈치하하기를 개록호신 량반들

이시을시다 저는별사름이 안이오라 러승디딕으희종 추월의오리비와 남미간

이되논터이온디

항더니 두사름만듯고 것히사름못듯게 무슨이약을 항구히항더니 두사름이

선각의 손을각기다아잡고

더런천참만류항야도 죄가남을계집 그현철호며너리 밧씨부인을 세상에 용

남지못호를 모호을다잡아니여 견디지못호게 학티를항다가 필경은 돈을밧고

팔아먹으라고 또 유위부족이야 이런 흥흥거조를 하러 드릿소구려 그러나 그
 디는구씨에 심복으로 이러흔 위임을맞하 이곳디와 직히던터에 무슴샤샨으
 로 이실직고를홍시오 그곡절을 좀드릅시다

선각이가 다시이러 머리를조으며 저는서울싱장이 안이오라 본리향방티샨으
 로 동병애을 굴너드러가 여러히지니웁다가 일던에비로소 경성으로올나와 남
 미지의로 흥갑을차자 갖가히상총 흥웁더니 하로는갑의누의 추월이가 제상전
 구씨와 그며나리되시는 박씨의 리약을홍는디 구씨는이제상에 데일무던흔
 부인이오 박씨는 이제상에 데일웁흔 부인이라고 흥썬안이라 만일그디로니
 버려두었다는 장초려씨집에 큰요일이될터인즉 스세부득이 죽여업실경륜을
 구씨가 문지이구나나 심복지인에 가히밋고 일을위임을만흔 조격이업서 근심
 흥는중이니 부디그일을 담임흥야 잘보와 주기곳흥면 큰이익이 성길것이기로
 아처럼말을홍노라 흥기에 제가아모리 령민치는못흥나 십년화방의 그만논치
 를 엇지짐작 못흥겟슴잇가 그러나 제실정을 조세알아 좌우간조처를 흥조고
 짐짓 허락을흥고 구씨와 면회흥기를 청흥앗더니 과연그날밤에 추월을싸라구
 씨가와서 조기에실정을 모다도설흥는디 그말을다흥조면 념오 장황도흥고 그
 약흥무리가 정담초로 사람을은근히 또보는지말나는디도 업스오니 대강그쥬
 지로만말흥조면 도모지 박씨부인한아 살히흥기로만 위쥬를흥야 심지어조

집지산을 분반사지흥야 쥬마흥기로 일후증거물을 숨자고계약서를 써니라흥
 야 친필에도장바든 계약서를 바다가지고 어제부터 이곳애와 직히기는 박씨
 부인일흥을 만나외웁고 이스연을 통지흥야 지체말고 어서가서 찰흥홍화를
 면흥시도록 흥이올시다

출영이와 두형이가 종사도의징이 드러서 서로면면상고(面面相顧)흥다가
 (차)그디에말을 듯건디 디단히감스흥오마는 그러나 초면으로 디흥난터에 우
 리를 엇지밋고 이런리약을 다흥시오

(조)그는 그러치안이흥오니다 흥갑이가 서산부근에를가서 세세히 정합흥회
 보를들어 당신두분성씨와 명스즈를 임의드릿슴고 또는지금디면흥와 말슴
 흥야보온즉 결코허황흔 흥식을안이흥실줄 짐작흥웁기 진정을 드러 흥흥것
 이오니 조곰도의심치마르웁소서

흥고죽기에서 구씨에흥야쥬던 계약서를 외인디
 출영과 두형이그 계약서를바다 뒤져뒤적보다가 다시밋기를
 (갈)여보니까 흥마디 무려볼일이잇소 가량딕에서 계약서를 바다가지고 죄물
 에 탐을디여 약흥흥흥을 흥량이면 우리계향흥야 실정말을 안이흥앗슴것이
 오 계약서를 바다들리도 약흥흥을 안이흥앗슴지경이면 그자리에서 반디를흥
 던지 반디를못흥쳐지이면 달이몸을 피흥앗슴터인디 귀티여 이곳저와서기

다리고잇슨 곡절은 웬일이오

(조)그처럼 무르시기가 옹혹무괴을시다마는 이곳터와서 기다림은 다른곡절 이안이오라 저편말만듯고난 알슈업스닛가 이런스당을 조세듯조은후 된일 조쳐할것이 잇슬썬더러 앓가말솔과갓치 어서속히가서서 면화를향시라고엿 좁조는본의을시다

(갈)뒤일조쳐라요 무슨조쳐할일이잇는요

(조)그난김히 무르실비 안이을시다 당신두분은 저부인을 보호향야다 천택에 서지 무스득달게향야 들이는것이 큰목덕이시오나 조금이후로는 아모염어 마르시고 어서길이나 썬나가십시다

(차)여보우리들도 박씨부인을 구호향노라고 이썬향난터이오 택에서도 역시 박씨부인을 구호향록덕으로 이처럼향난터이니 우리셋이 삼형제로결의를향 고 박씨부인을 미데로향향야 이려케 우리만보고 설화할것이안이라 박씨부 인을아조면디향야 진경을설화 향난것이 엇더향오

(조)그는만만 부당할것이 이스름이아모리 가슴을열어 실정을 고향얏쓰나 큰 혐의저디에 아조디면향야 퇴일필요가 업스오니 이연유를 박씨부인에게 조세 말슴향시고 아못조록 속히썬나서서 천덕덕에를 득달향시도록 향음소서 (갈)턱에서는 장초엇의로 향향시라오

(조)저는경성으로 도로올나갈터이을시다

(갈)서울노가게되면 구씨를응당 만나볼터인디 우리일행을 보앗느냐 무르면 무엇이라고 디답향실라오

(조)그는무르실바이 안이을시다 제가엇더케 조쳐을향음던지 임의모음에 작 정향바가 잇스오니 아다음에 조연아르실일이 잇스올리다 어서썬나시오

(차)형님 더분에말이을소 우리는 갈길이나 어서가십시다

급기쳐로 손스길난호아 작별향썬에 선각이가 다시부락향괴를

(조)아다음일은 제가죽기를 향향고 보아들일터이니 아모염녀를 말르시고 더 부인을어서되시고만 가시오 이사름의 말슴은부디 부인에게설파쳐 마음소서 그디말슴을들르시면 한갓상심만 되실썬이지 일에는아모 효험이 업슬터이 을시다 필경총망중에 반전도너네이 가지고오시지 못향셔슬것이니 이것이 변변치안으나 그지고가음소서

향고 업랑으로 돈백원을 너여주나

(차)이것은 웬것을주시오 반전업시 길을썬날이가 잇겟소 염녀말고 도로너으 시오

(조)안이을시다 그돈인즉 박씨부인택물건이지 이사름에것이 안이오니 아모 말슴마르시고 바다너으셨다가 부인에일에 디향야쓰시옵소서

두형이가 마지못하여 밧아너으며

(차) 할일업소 이리주시오 이처림의리를 주장하시느 터이니 리두우환도 힘써
방어하여주시오

갈차량인이 교구등을 저축하여 충청도로향하고 총총히떠나간후 홀로 서울을
바르보고올나오다가 동작이근처에를 당도하여 일부러히지기를 기더려주막에
들어가 갑은불계하고 큰기흔마리를사서 그티깅이를잘너 보의다싸서들고 즉
시홍갑의 집으로드러가더라

잇씩구씨는 조선각을 보닌후회회를 기다리노라고 추월리를 세염도로 홍갑
의집으로 보닉여소식을 탐지하더니 밤이숙하여 과연 조선각이 드러오는지
흔손으로 보즈에싼물건 하나를들었고 전선에혈흔니 랑즈흔지라

을치박씨를필경 죽이고오노구나

심히분주히 마조씩여나아가며

(추) 스돈남이오시네 손에드신것은 무엇이고 저피철은 웬일이오닛가

(조) 압다요란스럽소 안으로드더갑시다

홍갑과 추월이가 비힐티업시 악종이지마는 그광경을보고즈연 겁이나던지 슈
죽을벌벌떨며 선각을짜라드러와 좌정후에 갑이논갑히 말도못하고 한구셔
에 안젓는티 추월이가 마음을도실너먹고

(추) 스돈남 가셨든일은 잘보았슴잇가

(조) 예 | 보다모로시오 어서려승지 맥으로가서 마님을되시고 오시오이것도천

히보시게하고 또엿줄말슴도잇스니

(추) 마님은엿쥬어 무엇흠잇가 그것이아마 그것인듯심으니 나를주시면 령나

업시 갖다가드릴터시오 무슨말슴인지 나다려만하시면 저세엿쥬터인티오

(조) 이것을당신이 갖다드리는것다르코 내가드리는것다르지 안이향오 또엿줄
말삼은 마님께씩적점으로 엿줍지를안이향면 미구의큰일이날터이오니 공연
히저체말고 어서가서 슬몹이 엿쥬아 되시고오시오

추월이가 다시아모말도안향고 급히삼청동으로올나가 구씨부인을보고 급

흔말로

마님마님

구씨가추월에 회보를기더리며 잠을지못하고 누엇다안젓다 가삼이울녕을녕
조부비듯흔초에 저최소리가릉릉하며 마님마님겁푸부르는 소리를듯고 허둥
지둥이러나 문을열며

(구) 그게누구나

(추) 원네올시다

(구) 추월이냐 어서드러오나라 그리엇더케되엿다

(추)일이 되었습이다 예그 시원상쾌히 마님어서 옷을갈라 입으시고 원네와가
십시다

(구)이일이만되었스면 고만아저 나는무엇하러가즈느냐

(추)예그 조가가 마님을천히 뵈와야 말씀을하겟다고 옛쥬와오시도록 하와오

(구)그리 뒤관절일은 뇌소원뒤로 되었다더나

(추)뒤구말꾸오 보의다피가 썩々듯는사름의 뒤강이를 싸셔들고 왔던걸이오

(구)그스름이 나느웨보즈나 아마저산분비 셔문인것이지 그말리나거던 나도

밀어막는 뒤담을후련이와 너도뇌말을싸라셔 좀밀막이라 도모지안이갓스면

도흐런만은 괴어히나를 뒤면하겟다흐다니 흘슈도업고 또뇌가 가서무엇가

지고와다노것을 달나고히셔 내가처치를하야 업식노아야 믿음을네나뇌나노

코지뇌지 안이하노야 아마렷던지 어셔가보자

하교 분류불가히 추일을싸라 화기동 마루를뇌러오며

(구)이이 뇌름음이 공연히 슈란하야지며 거름이썩々 뇌걸이지를안이흐다 예

그 괴약도히라

(추)아모렴 안이그려하시겟습닛가 가시면 흥흔것을 보실싱각을하시닛가 그

러하신것이 지오 원네도마음의 무심중그것을보고등스골이 웃습하야지며 무

사무시하던데오 마님몸음을 단々히 잡슈시고 어셔가셔오 그셔짓죽은뒤강

아가무엇이라하닛가

이모양으로 짓거리며 흥갑에 짐에를당도흐나 조션각이가 마루에걸어 안젧다

가니러인스하노저라 구씨얼골에 우습을그득이 썩우고

(구)예그 얼마나 고성을하섯셔오

(조)고성이랄것 무엇닛습닛가 밤중에이러케 흥측음시라고 옛쥬와셔 뒤단

황송하오니다

(구)별말을 다하구려 내일을위하야 그리된바에 엇의썩지 뇌름음에 감사흔지

황송이다무엇이아오 그러나그일은 뇌소원성취를식여 쥬섯다지오

(조)그야다이를 말씀이오닛가 이것보십시오

하며 밧그로나아가더니 피가썩々듯는것을 들고드러오며

(조)이것보십시오 이만하면 알으시겟습닛가

(구)뇌일에 이쳐렷하셔니 은혜빅골난망이을시다

(조)인제는 부인마음에 시원상쾌하십밧가

(구)아조 시원상쾌하오니다

(조)그러나 두어마디쥬통히 부인게엿줄말씀이 잇스니 사돈임은잡시 밧그로

좀나아갓다 드러오시오

(추)예그나아가저오

추월이가 밧그로나아가니 그방의희미한 등불아리 선각이와구씨 단들뿐이라
선각이가 구씨압으로 갖가히안즈며

(조)그리며느림을 이제상에업신것이 썩시원하심잇가

(구)그야며느리로말하면 시원하다는것이 불가하지마는 그년은떠나리로 말
할것이안이라 곳나의원슈 일반이닛가 죽은것이 시원하지를안이하여요

(조)정시원하거든 이것을천히좀보시지오

할며 웃목에 노앗는 피무든보를 글너구씨압히다 퍼서놓는디 아모라도 그광
경을당하면 몸서리가쳐서 뒤로물너안즈며 감히눈을바로뜨지 못하련마는 구
씨난 웃지된우인이던지 그며느리죽인일만 만심환희하야 싱금덩이나 싸다노
은것처럼 즈제드려다보더니 샘씩놀나며

(구)여보이것이 엇의스름에 머리오어셔키 디강이를 가져왔구려

선각이가 눈을부릅뜨고 소리를썩 질은다

이년이요악호년 키디강이니 웃지란말이나

호손으로 구씨에머리채를 움겨잡고 한손으로 품의품엇던칼을 너여들고
너갓치 무도멸륜호년은 잠시라도이세상에 살너두었다는 큰히가싱길터이니
내손으로당장 죽여업시는것인즉 너는죽난것을 원통히너가지말지어다
구씨에 얼골빛이 경각에 파라케질이되

(구)에구 이일이 웬곡절이오

(조)곡절은 무슨곡절 죄지으면 죽는것이 정당호이치지

그말아썩셔러지자 선각의손에는 갈빛이 번져호더니 구씨에목에서 선지피쏘
다지며 방바닥의가 푹엎드러지더라

이씨의 추월은 잠시몸을피호라다가 무손이약을 호노라고 나를따노호고 궁
금징이싱기어 감안감안히 창밧그로갓가하와서 귀를기우리고 소리업시엿듯노
라니 방안의셔 무손피상시러운 소리가나며 비린니가코의 왈각제치는지라
눈 이등구리져셔

에그 이게무슨소리야

호고 방문을막열야는디 선각이가 문압히직키고 서잇다가 손을숙녀여밀어 추
월의머리채를 휘여잡아 방안으로 드리썰더니 이년너갓치 의리업고 악독호년
은 진작죽여업시야 호겟다
추월이가 호니업시 썰너드러가

에그 스름죽네

선각이가 칼로난자를호며

이년사름죽네

죽이기로결심호고 리로은칼로 란호야노앗스니 제가엇지살기를브라이오인

희생명이 떠러졌다라

선각이 그 인명들을 살히훈후 그 칼로 저기가 저쳐하랴다가 다시 무슨 생각을 하고
손가락에 피를 적어 벽상에다 살인자 조선각(殺人者趙先覺)

이라 대서 특서하고 인홍야 부지거쳐로 도주를 향앗는디 그새 홍갑은 성의에 골
물홍야 담벽사가기에서 아직 드러오지 안이 향앗고 홍갑에 처는 낮에 정구지역
에 골을 돌아다가 제방에 드러간이 얼었던몸이 후루루 풀이며 전신이 노끈홍야 세
상을 모르고 잠이 깊히 드러 오모란 줄을 몰랐다라

홍갑이가 저정이지는 후에야 비로소 저 저문을 닫고 집으로 드러오니 중문방문
이모다 턱턱 열이었고 비린내가 축비향는지라 의심이 더러나서 쥬머나의셔
냥을너여 불을켜들고 안방안을 휘휘 둘러보다가 허억 소리를 질르고 뒤로 벌떡
잡바지며

우리 집에 사름업소

의마디 소리를 지르니 홍갑의 쳐도 그제야 잠을 써여 삼씩 놀나 제방문을 열어 져
드리며

웨그리오 에그 지금이 언의셔나 되었나 인제야 드러오셨소

갑이 숨찬 소리로

(갑) 여보이 게웬일이오

희생명이 떠러졌다라

선각이 그 인명들을 살히훈후 그 칼로 저기가 저쳐하랴다가 다시 무슨 생각을 하고
손가락에 피를 적어 벽상에다 살인자 조선각(殺人者趙先覺)

이라 대서 특서하고 인홍야 부지거쳐로 도주를 향앗는디 그새 홍갑은 성의에 골
물홍야 담벽사가기에서 아직 드러오지 안이 향앗고 홍갑에 처는 낮에 정구지역
에 골을 돌아다가 제방에 드러간이 얼었던몸이 후루루 풀이며 전신이 노끈홍야 세
상을 모르고 잠이 깊히 드러 오모란 줄을 몰랐다라

홍갑이가 저정이지는 후에야 비로소 저 저문을 닫고 집으로 드러오니 중문방문
이모다 턱턱 열이었고 비린내가 축비향는지라 의심이 더러나서 쥬머나의셔
냥을너여 불을켜들고 안방안을 휘휘 둘러보다가 허억 소리를 질르고 뒤로 벌떡
잡바지며

우리 집에 사름업소

의마디 소리를 지르니 홍갑의 쳐도 그제야 잠을 써여 삼씩 놀나 제방문을 열어 져
드리며

웨그리오 에그 지금이 언의셔나 되었나 인제야 드러오셨소

갑이 숨찬 소리로

(갑) 여보이 게웬일이오

(처) 일이 무슨 일이란 말이오

(갑) 어서 등에 불줄켜가지고 올라오 갑의 처가 급급히 등불을 켜들고 와서 제가
장과 몇처 안방을 드러다보더니

(처) 더게웬곡절이오

(갑) 누구다려무려 집에잇스며 더야단이나는것을 도모지모르고 감안이잇소과
왕이지경된터이니 웬사름이즐비하게 죽었나 저세보기는 줄음시다

홍갑이가 무서운마음을 억제로참고 방으로 드러가 등불을 빗취여 세웃세웃드
려다보더니 에그머니 마님을 었던놈이 칼로질너 죽었네

또이편으로 드러다보더니

어—추월이도 죽었네

홍며너외가 황황히 두셔를 못차리다가

(갑) 그러니 사람이 집에잇스며 이야단이나는것을 몰났단말이오

(처) 아사누님만 펴쳐드러왔다 나긔다향며 우리오라바지를 기더리는것을보고
고만첫잠이 색드러서 몰나썩려 사름이 두명이나 상을씩 야단법석인들 쟁게
희셔슬서

갑이가 흐춤서서 두리번두리번 생각을 놓다보더니

(홍) 여보우리가 맛모로고 이리코잇다는 누의원슈도 못갑고 큰봉변을 흘터이니

임지는 턱으로 뛰여가 령감께 마님상스는 일을고하고 노논이길로 경찰셔로
가셔 고발을할겄소

(처)에그 그리흡시다 사름이살다가 이계웬익운이야
려승지는자다가 그급보를듯고 허리썩도 밋쳐못미고 바지춤을 चु켜잡부면
셔 허둥허둥 흥갑의집으로 너려

와셔두신체를 들너보고 에구데구 울기만하며 엇지흐출모로논디 뒤밋쳐데겨
데겨군도소리가나며 순사드리 우루루드러오더니 몇명은 방오로드러가 시체
를료사하고 몇명은마루에서셔 흥갑니외를신문흔다

(순사)흥갑너는집에서 이런일이 나는것을 엇지히셔 금단치못하얏든고

(흥)안이올시다 소인은 밤이자정이되도록 더압더즈에서 물건을팔다가 집으
로드러오잇가 이런변이났습니다

(순사)그러면사름은 한나도안이오 들식이나 누가죽엿셔 조성녀 너는집에잇
셔스니가 응당죽인사름을알게구나

(조성녀)저는 종일밭게셔 진무치일을 할습다가 썩썩호방에를 드러오잇가 열
어던몸이 풀이며 스지가로곤하야 첫잠이야조썩 드릿는디 잠결에소리를질
은는것을듯고 놀느썩여 나와보온죽 제제방이 이것이웬일이냐 썩들기에그
제야집안에 변이난줄을 알앗습니다

(순)그러면 너즘들기전에 려승지대마님이 네집에오신것을 알아던가

(조성녀)못뵈왔습니다

(순)못보앗다니

(조성녀)못보앗셔오 마님썩셔 제집에를 혼번도 오신적이업더니 엇그저게한
번지나시다가 잠잔드러오섯던일은 잇습니다

(순)누가엇그제 일을몰나 엇져역말이지

(조성녀)엇져녀에그 과연오신것을 못뵈옵고 제식누의난 와잇는것을 보앗습
니다 에그 언의결들에 오섯다가 저디경이되섯슬가

(순)네식누의논 누구인고

흥갑이가 엇히섯다가

(흥)더기문압히 슬어져죽은것이 소인에누의람이다

(순)네누의는엇의로 출가를할앗던가

(흥)아죽출가치 안이할앗습니다

(순)그러면 네쳐의말이 식누의논와 잇는것을 보왔다하니 미출가천녀가 엇의
가엇섯길너 서삼살렷게 와엇다할앗셔

(흥)에-소인의 누의논 려승지대 하인으로 드난을하고 잇습니다
려승지가 엇해섯다가 헐덕헐덕 숨찬말로

(려)여보시오 경관여러분 아뭇조록 토사를 잘 할야 이원슈를 갑히 주시오
(순)댁은 누구심잇가

(려)예니네가 려승지라는 스름인디 더괴죽은 스름은 나의니즈이오
(순)형감은 감안이 더리물너서 계시다가 잇다 못는 말슴이잇거든 디답을즈세
히공심시오

잇속에 방의 드러갓든순수가

허어 이것보아라 칼로 못여러번식을 질넛는걸 허어

이보의싼것은 무엇인가 에그리디강이 잘은것일세

항머등불을 놓히들고 휘々들너살피다가 벽상에철셔를보고 갓가히가서 자세
너려보더니 아모말업시구노도를 췌여 벽을득득그어 철셔쓰인 도비를들러너여
들들말아들고 나오더니 흥갑다려

(순)네집에 죠션각이라노 자가다니던나

(흥)죠션각이가 소인의쳐남이을시다

(순)네쳐남이면 언제왔다갓노

(흥)슈일전에 단여갓습니다

(순)간밤에는 온일이업고

(흥)밤에는 왔던줄 소인은저즈에 잇섯스잇가 즈세모름이다

(순)죠성녀너는 집에잇섯스잇가 네오리비의 왔던것을 알아갓지

(죠성녀)저자는동안에 왔던지 누어즈노라고 보지를못할야 씀니다

순사가 발을구르고 소리를질너 호령할기를

(순)그리도종시 괴망을할거던 오리비온것을 누의가몰났서

(죠성녀)제오리비가 오기만할앗스면 저를씨우기라도 할앗슬터인디 필경안이
왔던것이을시다

(순)무슨소리야 죠션각이왔다간 증거가확실흔디

(죠성녀)증거는무슨 증거가잇는지 알지못할오나 제알기에는 온적이업습니다

(순)죠가에집은 엇의동리 몇등몇호인구

(죠성녀)제오리비가 엇의집이나잇습잇가 편발씨에 동경에를가서 공부할노라

고 여러히잇다가 임아적건너온지 얼마안이되느디 아즉장가도못들고 집간

도작만치못할사후에 아즉스주인을청하고 잇답니다

(순)그스주인은

흥갑이가 제방 고비에서 명함을죽을 너여주며

이것이 죠션각에 명함이온디 저잇는주인에 통호를 괴룩할앗습이다

순사가 그명함을받아 자세히보더니 순사명명은 선각에 스주인으로보노고 몇

명은 흥갑너의를 포박할야 압세우고 인부식여 두시체를씨메여 경찰서로 드

명은 흥갑너의를 포박할야 압세우고 인부식여 두시체를씨메여 경찰서로 드

러웃더라

날이야 조발그미 서장이 출석하야 홍갑의니외를 다시 신문하느즉 즉시려승지를출
두게하야 집에니와왕하는 사람누구누구와 구씨와 데일친절하 스편이며 웃가히
부리는 하례비와 평시에언의스름에게 작혈하 일아잇고 업는것을 낮초치 무
른후에 그 짐식구를 모조리불너드려 못는티 려승지에티답은 본인에마누라가
별노 작혈하사람은업고 다만큰집살님을 주장하야 하노라고 아랫것들에게듯
기실은 썩지람은 종종하일은잇지오

(서장)그야 무슨 혐의될것이잇나 혐의라하는것은 심명관계에 큰위절되는 일
리라던지 리히득실에 큰관계되는일이라던지 남의게 적악하일이 악착하거
조가 후잇섯느냐말이지

(러)그는 잇의사지던지 업고요 한가지제가 함혈할만하일은 며느리를 쫓츠보
닌 일밖에업슴이다

서장이그말들듯고 크게의심을녀

(서장)며느리를 쫓다나 무슨죄악이 잇던가

(러)이런말슴은 법정에서하기는 남이부그림소이다마는 괴위 이디경된이상애
은회할슈가 잇슴닛가 며느리가 작인은 극가하나 형실이부정하디 마지못하
야 제천정으로 보니엿슴니다

(서장)부정하형실은 무엇인고

(러)그는갑히 무르실바도 안이오 니입으로 말설도못하겟는이다

(서장)그것이 무슨말이야 공연히 은회치말고 어서말을 하렷다

려승지가 말지못하야

며느리가 조식을 비엿드라오

서장이 박장티소하며

(서)며느리가 조식비인것이 경스라홀터인디 무슨부정하 일이라고

(러)조식놈은 동경가서 류학을하교 집에업는디 며느리가 잉티를하얏스니 변

괴가안이오닛가

(서장)잉티형정거는 분명히알았나

(러)사람죽은티 디하야 원슈갑할말슴이나 무르실것이지 남의집가정 지스는

웨이리치문하시오

(서장)엇지혀서못던지 물을만하 필요가잇서 관리가못는것이니 바른티로디답

이나하는것이 가하니 여러말말고 잉티하 명확정거를 말히

(러)이런말하기가 참아붓그림소만은 제가감리 모양으로 알키에 피독산두첩을

련복식엿더니 인히 락티를하야서 내눈으로 분명보앗소

(서장)낙티하것을 누가먼저보앗서

(려)우리네외가 며느리 알는것을보라고 제방을 막드러가는데 여기죽은 추월
이가 며느리다리를 줄를너죽다가 입을속에서 집어닌것을 본즉 극히심상치
안이흥기로 일절기구치말나 그 방에잇던식구를 엄절히단속하고 그 피덩이
는아모도 모르게 쌓의다 파무더버렸소

(서장)그것이 언의척 일인고

(려)금년 사월망간이올시다

(서장)며느리를 쫓기난

(려)철월인가 보오이다

(서장)그러면 그일발각되는 동시에 며느리를 안이쫓고 엇지흥야 철월에 와
서야 그 거조를알았던고

(려)그는 며느리쫓는것이 참아할일이온나가 락티할일을 휘지부지하고 저다
러타일너 다시는 회기즈신흥야 그런행동을 말나고 징계흥야 아무조룩스
름되기를 희망하였더니 회기는 고스하고 거거의심흥야 뒤스담을 넘어외인
간통을 란만히흥으로 스세부득이 철월에와서는 남부그러운 거조를알았슴
나다

(서장)며느리 친정은엇의며 간뒤에소식을 언제드렸노

(려)제친정은 충청도진잠 박참관집이온디 저간이후로 피츠에 아모소식을 듯

지못알았셔오

(서장)응고만두고 저리물너서 잇게오

하고 려승지접남녀 흥인을 하나씩 밀실로 불너들여 다 각각신문하는디 흥은
박씨가 친정으로갓다거니 흥은중노에서 도망을알았다거니 흥은일절모른다고
잡아찌니 줄줄간에 조리를 차즈살인원범 조선각에 판계를알슈업는지라

려승지이하 그식술은 아즉물너 나아가잇서 다시부르기를 기디리라하고 흥갑
니외는 안에가둔후 눈치빠른 형스밋명을 너여노와 스면으로 조선각 종적을
슈적하더라

려승지는 조과부인 구씨가조과 잘못흔죄로 그갓치몹시죽은 줄은세닫지못하
고 조선각이만 이를세물고 버른다

이놈이 내집과 본리 은원이업는디 너마누라를 무슨혐의로 그모양으로 죽
였노 이놈을잡기만 잡으면 비야지를 같으고 간을너여쌈을더이다

그놈이 더욱 의리업는것이 추월이로 말하면 제미부에 누의라 아조남과도
달은디 그모양으로 죽여서 제누의와 미부가모다 경찰서에 잡혀가 고성을
하게하니

응다른놈이 죽이고 엄척을알라고 존선각이라 가칭형서를 후씨노코 달아
는것인가 그도그러치안이하지 다른놈의 소위코흐면 조선각이난 잇겟지 잇